

☞ 불단을 향하여

(편의상 ‘정기법회’시의 합송부분을 앞부분에 올렸습니다.
‘송계사 새벽 예불과 기도’는 17페이지부터 참조하세요.)

● 정기 법회시의 합송문

◎ 한글 천수경 전문

정구업진언

『수리수리마하수리수수리사바하』 (3번)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

『나무 사만다 못다남 음 도로 도로
지미 사바하』 (3번)

개경계

위없이~ 심히깊은 미묘한법을
백천만겁 지난들~ 어찌만나리
제가이제 보고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뜻 알아지이다.

개법장진언

『음 아라남 아라다』 (3번)
천수천안 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결림없는 대비심의 다라니를 청하옵니다.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크신원력 원만상호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천눈으로 광명비취 두루살피네.
진실하온 말씀중에 다라니펴고
함미없는 마음중에 자비심내어
온갖소원 지체없이 이뤄주시고
모든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닌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마음 신통장이라
모든번뇌 씻어내고 고해를건너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되오며
제가이제 지송하고 귀의하오니
온갖소원 마음따라 이뤄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일체법을 어서속히 알아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눈 어서어서 얻어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중생 어서속히 건네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좋은방편 어서어서 얻어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배 어서속히 올라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고통바다 어서어서 건너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계정해를 어서속히 얻어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언덕 어서어서 올라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무위집에 어서속히 들어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진리의몸 어서어서 이뤄지이다.

칼산지옥 제가가면 칼산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 제가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귀세계 제가가면 아귀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 제가가면 악한마음 선해지고
축생세계 제가가면 지혜절로 얻어지이다.

나무 관세음보살마하살
나무 대세지보살마하살
나무 천수보살마하살
나무 여의륜보살마하살

나무 대륜보살마하살
나무 관자재보살마하살
나무 정취보살마하살
나무 만월보살마하살
나무 수월보살마하살
나무 군다리보살마하살
나무 십일면보살마하살
나무 제대보살마하살

『나무 본사아미타불』 (3번)

신묘장구대다라니

나모 라-다나 다라야야 나막알야 바로기제
새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하 사다바야
마하가로 니가야 옴 살바 바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막 까리다바
이맘알야 바로기제 새바라 다바 나라간타
나막 하리나야 마발다 이사미 살발타
사다남 수반 아예염 살바보다남 바바마라
미수다감 다냐타 옴 아로계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헤헤하례 마하모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하리나야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하 미연제 다라다라 다린나례 새바라
자라자라 마라미마라 아마라 물제 예헤헤

로계새바라 라아 미사미 나사야 나베
 사미사미 나사야 모하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호로 하례 바나마 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못자못자
 모다야 모다야 매다리야 나라간타 가마사
 날사남 바라하라나야 마낙 사바하 싯다야
 사바하 마하싯다야 사바하 싯다유예
 새바라야 사바하 나라간타야 사바하
 바라하 목카싱하 목카야 사바하 바나마
 하따야 사바하 자가라 욱다야 사바하 상카
 섭나네 모다나야 사바하 마하라 구타
 다라야 사바하 바마사간타 이사시체다
 가릿나 이나야 사바하 마가라 잘마니바
 사나야 사바하 『나모 라-다나 다라야야
 나막알야바로기제새바라야사바하』 (3번)

동방에~ 물뿌리니 도량이맑고
 남방에~ 물뿌리니 청량얼으며
 서방에~ 물뿌리니 정토이루고
 북방에~ 물뿌리니 평안해지네.

온도량이 청정하여 티끌없으니
 삼보천룡 이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이제 묘한진언 외우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호하소서.

지난세월 제가지은 모든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이제 모든죄업 참회합니다.

나무참제업장보승장불
보광왕화염조불
일체향화자재력왕불
백억항하사결정불
진위덕불
금강견강소복괴산불
보광월전묘음존왕불
환희장마니보적불
무진향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마니승광불

살생으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악한말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오랜세월 쌓인죄업 한생각에 없어지니
마른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자성 본래없어 마음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함께 없어지네.
모든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라네

참회진언

『옴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하』 (3번)

준제주는 모든공덕 보고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외우면
이세상~ 온갖재난 침범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받으니
이와같은 여의주를 지니는이는
결정코~ 최상의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지불모대준제보살』 (3번)

정법계진언

『음 람』 (3번)

호신진언

『음 치림』 (3번)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진언

『음 마니 반메 흠』 (3번)

준제진언

나무 사다남 삼막삼못다 구치남 다냐타

『음 자례주례 준제 사바하 부림』 (3번)

제가이제 준제주를 지송하오니
보리심을 발하오며 큰원세우고
선정지혜 어서속히 밝아지오며
모든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수승한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모든중생 깨달음을 이뤄지이다.

여래십대발원문

원하오니 삼악도를 길이여의고

탐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불법승~ 삼보이름 항상듣고서
계정혜~ 삼학도를 힘써뉘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배우고
원컨대~ 보리심에 항상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옵고
온세계~ 모든국토 몸을나투어
모든중생 빠짐없이 건져지이다.

발사홍서원

가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으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오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오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으오리다.
자성의~ 법문을~ 배우오리다.
자성의~ 불도를~ 이루오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3번)

👉 설법 시작 전에 합송

◎ 우리의 신앙 발원

거룩하셔라 세존이시여!

거룩하셔라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덜인 것을 벗겨 주시듯,

길 잃은 자에게 길을 가리켜주시듯,

눈 있는 자는 와서 보라하고

어두운 방에 등불을 밝히시듯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히셨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이제 이 목숨이 다하도록

항상 미타 염불을 행하며

십선계를 수지한 제자로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력 속에

반야 지혜를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소서~

『중생마음 깊은곳에 아미타불 계신다네

중생마음 부처마음 본래들이 아니어서

입과마음 서로응해 염불삼매 성취하면
일체병고 소멸되고 일체공덕 성취되네.』
나무~ 아미타불~

☞ 설법을 마치고서 합송

◎ **최상의 행복경** (mangala sutta)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세상에서 존경받는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 마침

어떤 천신이 새벽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타숲을 두루 비추며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다가와서 계송으로 여쭙었다.

많은 천인과 중생들은 최상의 행복을

소원하며 행복에 대해 생각하오니

최상의 행복에 대해 말씀하소서.

부처님께서 최상의 행복에 대해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어리석은 사람을 사귀지 않고
훌륭한 사람을 공경함이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분수에 맞는 처소에 살며
남보다 먼저 공덕을 짓고, 스스로 올바른
서원을 세우니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널리 배우고 함께 익히며
스스로 절제하고 훈련하여
쏟아나는 좋은 생각 서로 나누니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부모와 어른들을 섬기고
아내와 자식들을 돌보며
세상 일에 막힘 없으니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가진 것을 나누며 바르게 살고
이웃을 보호하고 존중하여
스스로 비난하지 않게 행동하니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악한 짓을 싫어하여 멀리 하고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며
스스로 자기 개발에 힘쓰니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존경하고 겸손한 마음과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느 때나 가르침을 받아들이니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한결같이 온화한 마음으로
삼보와 스님들을 존중하며
어디서나 가르침을 따라 배우니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계율을 지키고 지혜를 닦으며
거룩한 진리를 항상 실천하여
해탈의 길을 실현하오니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 신중단을 향하여

◎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 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 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 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 영단을 향하여

◎ 해탈주(解脫主)

나무동방해탈주 세계 허공공덕 南無東方解脫主 世界虛空功德
청정미진 등목단정 공덕상 淸淨微塵 等目端正 功德相
광명화 파두마 유리광 보체상 光明華 波頭摩 瑠提光 寶體相
최상향 공양홀 종종장엄정계 最上香 供養訖 種種莊嚴頂계
무량무변 일월광명 원력장엄 無量無邊 日月光明 願力莊嚴
변화장엄 법계출생 무장애왕 變化莊嚴 法界出生 無障礙王
여래 아라하 삼막삼불타 <3번> 如來阿羅漢 三막 三佛陀

[이상은 정기법회시에 주로 합송합니다.]

● 새벽 예불 및 기도때 합송문

(동참은 종성이 끝난 후 함께 시작 하시면 됩니다.)

◎ 부처님전 새벽 예불문(禮佛文)

아금청정수 변위감로다 봉헌삼보전

我今清淨水 變爲甘露茶 奉獻三寶前

원수애납수 원수애납수 원수자비에납수

願垂哀納受 願垂哀納受 願垂慈悲哀納受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至心歸命禮 三界導師 四生慈父 是我本師 釋迦牟尼佛

지심귀명례 시방삼세 제망찰해 상주일체 불타야중

至心歸命禮 十方三世 帝網剎海 常住一切 佛陀耶衆

지심귀명례 시방삼세 제망찰해 상주일체 달마야중

至心歸命禮 十方三世 帝網剎海 常住一切 達摩耶衆

지심귀명례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至心歸命禮 大智文殊師利菩薩 大行普賢菩薩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지장 보살마하살

大悲觀世音菩薩 大願本尊地藏 菩薩摩訶薩

지심귀명례 시방삼세 제망찰해 상주일체 승가야중

至心歸命禮 十方三世 帝網剎海 常住一切 僧伽耶衆

유원 무진삼보 대자대비 수아정례 명훈가피력

唯願 無盡三寶 大慈大悲 受我頂禮 冥熏加被力

원공법계제중생 자타일시성불도

願共法界諸衆生 自他一時成佛道

◎ 신중단: 예불(神衆壇)

청정명다약 능제병혼침 유기옹호중

清淨茗茶藥 能除病昏沈 唯冀擁護衆

원수애납수 원수애납수 원수자비애납수

願垂哀納受 願垂哀納受 願垂慈悲哀納受

지심귀명례 진법계 허공계 화엄회상 옥색제천중

至心歸命禮 盡法界 虛空界 華嚴會上 欲色諸天衆

지심귀명례 진법계 허공계 화엄회상 팔부사왕중

至心歸命禮 盡法界 虛空界 華嚴會上 八部四王衆

지심귀명례 진법계 허공계 화엄회상 호법선신영기등중

至心歸命禮 盡法界 虛空界 華嚴會上 護法善神靈祇等衆

원제천룡팔부중 위아옹호불리신 어제난처무제란

願諸天龍八部衆 爲我擁護不離身 於諸難處無諸難

여시대원능성취

如是大願能成就

☞ 영단을 향하여

◎ 해탈주(解脫主)

나무동방해탈주 세계 허공공덕 南無東方解脫主 世界虛空功德

청정미진 등목단정 공덕상 清淨微塵 等目端正 功德相

광명화 파두마 유리광 보체상 光明華 波頭摩 瑠提光 寶體相

최상향 공양홀 종종장엄정계 最上香 供養訖 種種莊嚴頂界

무량무변 일월광명 원력장엄 無量無邊 日月光明 願力莊嚴
변화장엄 법계출생 무장애왕 變化莊嚴 法界出生 無障礙王
여래 아라하 삼막삼불타 <3번> 如來阿羅漢 三막 三佛陀

☞ 불단을 향하여

◎ 새벽 기도의 합송문

정구업진언

『수리수리마하수리수수리사바하』 (3번)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

『나무 사만다 못다남 음 도로 도로
지미 사바하』 (3번)

개경계

위없이~ 심히깊은 미묘한법을
백천만겁 지난들~ 어찌만나리
제가이제 보고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뜻 알아지이다.

개법장진언

『음 아라남 아라다』 (3번)

신묘장구대다라니

나모 라-다나 다라야야 나막알야 바로기제
새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하 사다바야
마하가로 니가야 음 살바 바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막 까리다바
이맘알야 바로기제 새바라 다바 나라간타
나막 하리나야 마발다 이사미 살발타

사다남 수반 아예염 살바보다남 바바마라
미수다감 다냐타 음 아로계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헤헤하레 마하모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하리나야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하 미연제 다라다라 다린나레 새바라
자라자라 마라미마라 아마라 물제 예헤헤
로계새바라 라아 미사미 나사야 나베
사미사미 나사야 모하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호로 하레 바나마 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못자못자
모다야 모다야 매다리야 나라간타 가마사
날사남 바라하라나야 마낙 사바하 싯다야
사바하 마하싯다야 사바하 싯다유예
새바라야 사바하 나라간타야 사바하
바라하 목카싱하 목카야 사바하 바나마
하따야 사바하 자가라 욱다야 사바하 상카
섭나네 모다나야 사바하 마하라 구타
다라야 사바하 바마사간타 이사시체다
가릿나 이나야 사바하 마가라 잘마니바
사나야 사바하 『나모 라-다나 다라야야
나막알야바로기제새바라야사바하』 (3번)

온도량이 청정하여 티끌없으니

삼보천룡 이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이제 묘한진언 외우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호하소서.

지난세월 제가지은 모든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이제 모든죄업 참회합니다.

나무참제업장보승장불
보광왕화염조불
일체향화자재력왕불
백억항하사결정불
진위덕불
금강건강소복괴산불
보광월전묘음존왕불
환희장마니보적불
무진향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마니승광불

살생으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악한말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죄업 참회합니다.

오랜세월 쌓인죄업 한생각에 없어지니
마른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자성 본래없어 마음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함께 없어지네.
모든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라네

참회진언

『음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하』 ~ (3번)

◎ 법신 기도 (法身 祈禱)

살려고 하여 살아가는 모두를 살려주시는

법신불(法身佛)이시여, 감응하시옵소서.

나의 사는 힘은 나의 힘이 아니오라 우주를 관철하신

법신불의 생명일세.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힘이 아니오라 우주를 관철하신

법신불의 권능일세.

법신불의 길을 알리시려 나타나신 불보살님이시여,

대자대비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여기는 실상의 세계, 무한한 생명의 바다,

무한한 슬기의 바다, 무한한 광명의 바다,

무한한 공급의 바다, 대조화의 바다일세.

법신은 모든 것의 전체, 법신은 완전한 생명,

법신은 완전한 슬기, 법신은 무한한 자비.

모든 것들 속에 법신의 생명은 살아있네.

법신의 슬기는 살아있네. 법신의 자비는 살아있네.

온 누리가 법신의 생명의 전개인지라

이 누리에는 오직 한 결 같이 조화만이 가득 찼네.

내가 앓는 데는 영묘한 실상의 세계,

내 몸은 금강실상 법신의 소생,

두루두루 원만한 대 조화, 광명변조 실상의 세계.

법신은 생명이신데 나는 법신의 소생이므로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은 나를 아네.
 법신은 자비이신데 나는 법신의 소생이므로
 나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네.
 법신은 모든 것의 전체이신데 나는 법신의 소생이므로
 내가 빌면 하늘 땅이 응하고,
 내가 움직이면 우주가 움직이네.
 대 조화이신 법신의 생명이 이 한 몸에
 한 없이 한 없이 흘러드네 흘러드네.
 대 조화이신 법신의 영묘한 힘, 자비광명이
 이 한 몸에 한 없이 한 없이 흘러드네 흘러드네.
 대 조화이신 법신으로부터 무한한 공급을 받는
 이 몸은 법신의 소생
 모든 면에 조화되어 풍족하네 풍족하네.
 아주묘묘실상계 我住妙妙實相界 시신금강심불생 是身金剛心佛生
 만사여의대조화 萬事如意大調和 광명변조실상계 光明遍照實相界

◎ 자비관 낭송문

-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오니
 내스스로 모든 적대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며
 모든 번민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 존경하는 부모님과, 스승님과 웃어른이 계시오니

그분들이 모든 적대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며
모든 번민으로부터 벗어나하기를 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3. 친애하는 가족 · 친지들이 있사오니
그이들이 모든 적대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며
모든 번민으로부터 벗어나하기를 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4. 친애하는 동료 선 · 후배가 있사오니
그이들이 모든 적대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며
모든 번민으로부터 벗어나하기를 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5.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형제 · 자매들이 있사오니
그이들이 모든 적대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며
모든 번민으로부터 벗어나하기를 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6. 이전에 적대감을 품었던 이들에 대한
모든 적대감이 이 순간 아주 사라졌고
그이들도 또한 나에 대해 적대감이 없으니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 새아침의 감사기도문 (感謝祈禱文)

나는 거룩하신 부처님의 소생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충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모든 좋은 일들이

과도처럼 밀려옵니다.

나는 오늘 모든 사람, 모든 사물에게

행복과 평화를 선택합니다.

나는 오늘 모든 사람, 모든 사물에게

사랑과 선의를 선택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불보살님 감사합니다.

선망부모 조고 조상님 감사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 이웃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님 감사합니다.

나와 인연짓는 모든 사람들 감사합니다.

내 몸을 이루는 사대육신,

오장육부님 감사합니다.

나는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내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믿습니다.

나에겐 늘 좋은 날 밝은 날 뿐입니다.

참 생명 부처님과 항상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고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또한 발원 드리웁니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3회)

광명진언 (光明眞言)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를 타야 흙**」 (7회)

해원결진언 (解冤結眞言)

「**옴 사다라 가닥 사바하**」 (7회)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법 나무상주시방승 (3회)

◎ **아미타불 정근 (북소리에 맞춰서 합송)**

**나무서방정토 구원본불 아등본사 생명실상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본심미묘진언

「**다냐타 옴 아리다라 사바하**」 (3회)

**아미타불재하방 착득심두절막망 염도염궁무렵처
육문상방자금광 고아일심귀명정례**

◎ **축원문 (스님의 개별축원시에 각자 절을 합니다.)**

앙고 시방삼세 제망중중 무진 삼보자존

仰告 十方三世 帝網重重 無盡 三寶慈尊

불사자비 위작증명 (혹 허수랑감)

不捨慈悲 爲作證明 (or 許垂朋鑑)

상래소수공덕해 회향삼처실원만

上來所修功德海 廻向三處悉問滿

원아금차 지극지성심 발원

願我今次 至極之誠心 發願

- 다함께 합송 -

거룩하신 부처님께 지성 귀의하옵고
합장 발원하옵니다.

세상을 비추어 이익되게 하옵시는
부처님이시여!

오늘 저희는 (새 아침)을 맞이하여 푸르고
맑은 합장을 올리며 발원드리옵니다.

저희는 이제, 청정하고 아름다운 본성의 자리,
밝게 빛나는 자성미타 불성의 자리를
회복하겠나이다.

그리하여 슬기로운 하루, 감사하는 하루,
대자유인 해탈의 삶을 열어가겠나이다.
주어진 책무에 감사하며 뜨거운 신심으로
정진하겠나이다.

모든 신명을 다 바쳐 오직 진실한 이익과
참된 행복의 길로 나아가겠나이다.

또한 자신을 포함하여 모두를 용서하는
열린 마음과 따듯하고
자비스런 마음으로 살아가겠나이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 바램은
매일 매일이 신선한 놀라움과,
감동의 나날이기를 바라옵니다.
매일 매일이 보람되고 즐겁고,
약동하는 인생이기를 원하옵니다.

매일 매일이 크나큰 범열로 가득 찬
 나날이기를 원하옵니다.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과 더불어 열어가는
 이 기도정진의 중요성은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묵은 업장은 소멸하고,
 바르고 맑은 인연은 두터워지며,
 원력과 소망은 성취되고,
 나약한 자신을 극복하는
 위대한 승리가 함께하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순간순간 내가 지은 업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강건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제각각 소망하는 바를 생각하거나, 낭송하고 절을 합니다.)

이러한 공덕으로 여기 송계사와 인연맺은
 모든 불제자들과 금차 불사에 동참하온 제자,
 인등기도, 연등 동참제자등 여기 특별한 기도를
 올리옵는 모든 제자와
 금일제자 (~) 등 각각등보체,
 이차 공덕으로 각기 다점생래로부터 지어온
 일체의 죄업장, 영리소멸하고, 현증수복하며,
 당생정찰 정등정각을 기원드리옵고,
 내지 각기 사대는 강건하고 육근은 청정하며
 지혜는 개안하고 복덕은 구족하며,
 가내는 화평하고 가업은 번창하는 등
 사업은 융창하고 일체풍과 마장장애,
 제약작난등은 영리소멸하며
 심중의 소구소망은 원만히 성취할 수 있도록
 가호가피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 신중단을 향하여

◎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떨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 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 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 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 영단을 향하여

(먼저 스님의 거불, 창혼 등을 마친 뒤에 합송합니다.)

◎ 바르도 정념해탈의 기원문

나무 마하무드라야!

일체법이 환상(幻相)과 같음을 요달해서
부정한 환상에서 해탈하여 진구(塵垢)를
여윈 청정한 몸을 얻어서 환상 같은 중생들을
인도하는 환상의 불신에 귀의합니다.

환상의 몸을 지니신 구원자 당신께서는
환영에 홀려 사는 저희와 같은 중생들이
환영의 현상에 미혹되지 않고

환상의 참모습을 깨달도록 가피하소서.

덧없는 환상의 이 육신을 벗어 던질 때
탐욕과 분노, 애착의 엉킴을 다 끊고서
무조작의 본래 상태에 마음을 안치하여
죽음을 해탈의 길로 삼도록 가피하소서.

임종 시 외적 감각들이 끊어지는 법으로
눈 등의 오근(五根)이 차례로 은멸(隱滅)하고
색(色)등의 오경(五境)이 하나씩 소멸할 때
은멸차제의 실상을 깨달도록 가피하소서.

지(地) 수(水) 화(火) 풍(風)의 사대가
의식으로 은멸하고

몸의 기운이 고갈하고 입과 코가 마르며
온기가 식고 숨이 거칠고 짧아질 때

단말마를 해탈의 길로 삼도록 가피하소서.

의식이 광명으로 은멸하여 외호흡은 끊기고

내호흡이 남아 있는 네 찰나의 시간 동안
현명과 증휘, 근득과 정광명이 출현하는
은멸과정의 실상을 깨닫도록 가피하소서.
현명의 내적 현상은 연기이며
외적 표상은 달빛이 비침과 같고
분노에서 생겨난 33자성분별(自性分別)의
마음이 소멸할 때, 밝은 억념과 열원(熱願)을
잊지 않도록 가피하소서.

증휘의 내적 현상은 반딧불이며,
외적 표상은 해가 떠오름과 같고
탐욕에서 생겨난 40자성분별의 마음이
소멸할 때 정지와 정념의 상태에서
인식토록 가피하소서.

근득의 내적 현상은 불꽃의 타오름 같으며
외적 표상은 라후에 가린 어두운 하늘과 같고
무명에서 생겨난 7자성분별의 마음이 소멸할 때
밝은 정념의 상태에서 인식토록 가피하소서.

네 번째 죽음의 정광명이 문득 밝아올 때
내적 현상은 구름 없는 하늘과 같고
외적 표상이 여명의 하늘처럼 밝아올 때
모자광명의 화합을 실현토록 가피하소서.
정광명에 머물지 못한 채 의식이 떠나면
배꼽과 미간, 뇌문(정수리)과 콧구멍과
귓구멍과 두 눈과 항문, 요도, 입 등의

아홉 문을 막은 다음
한 문만 열도록 가피하소서.
육계와 색계, 무색계와 야차와 인비인과
인간과 축생, 지옥과 아귀 등으로 탄생하는
자궁의 문을 막은 뒤 공행의 청정불토로
다카와 디끼니가 영접하도록 가피하소서.
혹여 의식이 바르도 상태로 유랑하게 되어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가족과 친구와
접촉하길 원하여도 대답이 없어 낙심할 때
탐착과 분노의 맺힘을 끊도록 가피하소서.
감각기관이 완전하고 업력의 신통을 갖고
법성, 금강보좌와 어머니 자궁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걸림 없이 지날 때
그들 모두가 환상임을 깨닫도록 가피하소서.
해나 달은 뜨지 않고 몸에는 그림자가 없으며
생각함과 동시에 삼천 대천을 획 돌 수 있으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깃털처럼 바람에 날릴 때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가피하소서.
음식으로는 향기를 먹고, 희미함이 격동하며
갓가지 환영들이 치성할 때
두렵고 비통한 마음에 분노가 솟구치면
그 망상의 본질을 깨닫도록 가피하소서.
간혹 기억이 극도로 명료하게 들지라도
다시 한 순간에 잊혀 저서 자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구분을 못해 의심이 솟을 때
 반드시 죽었음을 알도록 가피하소서.
 삼일 반나절이 지나간 이후부터는
 자신이 죽었음을 사실대로 알아서
 절망 끝에 새 몸을 찾아서 방황할 때
 각성에 귀의함을 알도록 가피하소서.
 바르도가 그대로 바르도임을 깨달을 때
 자신을 본존으로 닦은 뒤 광명을 닦고
 다시 몸과 광명을 합일한 쌍운을 닦아
 청정한 환신이 출생하도록 가피하소서.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솟구치며 수풀이 불타고
 곱풍이 몰아침과 같은 소리들이
 천 개의 벼락이 치듯 울려서 놀랄 때
 그것이 법성의 소리임을 알도록 가피하소서.
 오색이 현란하고 불타듯 방사하며
 광명과 크고 작은 빛의 방울들로부터
 분노신들이 “때려라! 죽여라!” 소리칠 때
 자심의 표출임을 깨달도록 가피하소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만들어진
 희고 붉고 검은 아찔한 절벽으로부터
 추락하는 환영에 소스라치게 놀랄 때
 자심의 표출임을 깨달도록 가피하소서.
 장차 탄생하는 그곳의 몸 모양을 하게 될 때
 백색, 적색, 황색, 청색, 검은색의

천상과 인간, 축생과 아귀와 지옥들의
 다섯 빛을 차례로 깨닫도록 가피하소서.
 궁전과 천자들의 즐기는 행위와
 오리와 소, 말 등이 있는 호수와
 좋은 저택과 부모가 교합함을 볼 때
 탐착, 분노, 질투가 사라지도록 가피하소서.
 붉은 업풍과 비구름과 한열에 쫓기어서
 굴과 바위 틈, 구덩이와 나무둥치 곁으로
 숨기 위하여 들어가는 광경이 일어나면
 곧 천한 자궁임을 깨닫도록 가피하소서.
 살생과 불 바퀴와 쇠로 된 집들을 보고
 기쁜 마음에 들어가려는 생각이 나면
 그 실체를 깨닫고 두려움없는 마음으로
 부정한 그곳에서 돌아오도록 가피하소서.
 태생과 난생은 시기와 질투를 내고
 습생(濕生)은 냄새와 맛에 탐착하며
 화생이 장소에 애착함을 일으킬 때
 탐욕, 분노, 애착이 없도록 가피하소서.
 부모 등의 탄생의 장소를 보게 될 때
 탐착과 분노가 없이 환상으로 여기고
 탄생의 실상을 요지하는 정념으로
 애착 없이 자궁 문을 막도록 가피하소서.
 자궁문을 막지 못해 탄생하게 되면
 극락세계와 도솔천, 동방정토나

전륜성왕, 바라문 등의 가문에
염원한 대로 태어나도록 가피하소서.
탄생과 동시에 과거 생을 기억하며
대승의 큰 법을 닦는 선근을 갖추고
자비의 이타심인 보리심을 일으키고
정진해서 대보리(大菩提)를 신속히 얻도록
가피하소서.

불보살님의 지극한 가피의 힘과
법성의 본질이 본래로 청정함과
또한 저희의 지순한 의지의 힘으로
발원한 그대로 성취되도록 가피하소서~

(제2대 득첸 린보체, 꺾가빨졸께서 지으신
발원에 의지하여 저희 또한 발원하나이다.)

◎ 장엄염불

(‘~’ 표에서 ‘나무아미타불’을 함께 부르며 념(念)한다.)

원아진생무별염~ 아미타불독상수~

願我盡生無別念 阿彌陀佛獨相隨

심심상계옥호광~ 염염불리금색상~

心心常係玉毫光 念念不離金色相

아집염주법계관~ 허공위승무불관~

我執念珠法界觀 虛空爲繩無不觀

평등사나무하처~ 관구서방아미타~

平等舍那無何處 觀求西方阿彌陀

나무서방대교주~ 무량수 여래불~

南無西方大教主 無量壽如來佛

「나무아미타불~」 <10번>

영가시여	영가시여~	금일천도	영가시여~
가뵈시다	가뵈시다~	극락정토로	가뵈시다~
맺힌원결	풀고나서~	청정국토로	가뵈시다~
이팔청춘에	가신영가~	청춘고를	풀고가소~
부부이별	하신영가~	상사고를	풀고가소~
부모두고	가신영가~	불효고를	풀고가소~
못다살고	가신영가~	여한고도	풀고가소~
낙태수자	영가시여~	단명고도	풀고가소~
비명횡사	고혼이여~	무주고나	풀고가소~
탐진치로	맺힌마음~	지금모두	털고가소~
저승길이	멀고멀어~	한번가면	못오시나~
그렇거든	가뵈시다~	극락정토로	가뵈시다~
일체법의	무상연기~	참모습을	깨닫고서~
환영들이	치성할땐~	자심임을	깨닫고서~
오늘천도	영가시여~	극락으로	가뵈시다~
극락세계	가실적에~	공덕자량에	힘입어서~
탐진번뇌	묵은때는~	공덕수로	씻어내고~
아귀도중	주린배는~	선열식에	포만하고~
지옥도중	모진갈애~	감로법에	해원하네~
지심으로	발원하온~	금일천도	선망영가와~

노자없고 배샷없는~ 미망애착에 빠진중생도~
 반야용선에 태워다가~ 생사대해를 건너갈때~
 아미타불 선주되고~ 관음세지 보처되니~
 사십팔원 원력따라~ 일심으로 아미타불~
 천도받는 금일영가~ 시방법계의 중생들도~
 가뵈시다 가뵈시다~ 극락정토로 가뵈시다~
 모두함께 극락가서~ 무상불도를 이뤄이다~

극락세계 십종장엄 ~

極樂世界十種莊嚴

법장서원수인장엄 ~ 사십팔원원력장엄 ~

法藏誓願修因莊嚴

四十八願願力莊嚴

미타명호수광장엄 ~ 삼대사관보상장엄 ~

彌陀名號壽光莊嚴

三大士觀寶像莊嚴

미타국토안락장엄 ~ 보하청정덕수장엄 ~

彌陀國土安樂莊嚴

寶河清淨德水莊嚴

보전여의누각장엄 ~ 주야장원시분장엄 ~

寶殿如意樓閣莊嚴

晝夜長遠時分莊嚴

이십사락정토장엄 ~ 삼십종익공덕장엄 ~

二十四樂淨土莊嚴

三十種益功德莊嚴

청산첩첩미타굴 ~ 창해망망적멸궁 ~

靑山疊疊彌陀窟

滄海茫茫寂滅宮

물물염래무가애 ~ 기간송정학두홍 ~

物物拈來無罣碍

幾看松亭鶴頭紅

극락당전만월용 ~ 옥호금색조허공 ~

極樂堂前滿月容

玉毫金色照虛空

약인일념칭명호 ~ 경각원성무량공 ~

若人一念稱名號 頃刻圓成無量功

삼계유여급정륜 ~ 백천만겁역미진 ~

三界猶如汲井輪 百千萬劫歷微塵

차신불향금생도 ~ 갱대하생도차신 ~

此身不向今生度 更待何生度此身

아미타불재하방 ~ 착득심두절막망 ~

阿彌陀佛在何方 着得心頭節莫忘

염도염궁무념처 ~ 육문상방자금광 ~

念到念窮無念處 六門常放紫金光

찰진심념가수지 ~ 대해중수가음진 ~

剎塵心念可數知 大海中水可飲盡

허공가량풍가계 ~ 무능진설불공덕 ~

虛空可量風可繫 無能盡說佛功德

산당정야좌무언 ~ 적적요요본자연 ~

山堂靜夜坐無言 寂寂寥寥本自然

하사서풍동림야 ~ 일성한안여장천 ~

何事西風動林野 一聲寒雁唳長天

원각산중생일수 ~ 개화처진미분전 ~

圓覺山中生一樹 開花天地未分前

비청비백역비흑 ~ 부재춘풍부재천 ~

非靑非白亦非黑 不在春風不在天

천척사륜직하수 ~ 일파자동만파수 ~

千尺絲綸直下垂 一波自動萬波隨

야정수한어불식 ~ 만선공재월명귀 ~

夜靜水寒魚不食 滿船空載月明歸

보화비진요망연 ~ 법신청정광무변 ~

報化非眞了妄緣 法身清淨廣無邊

천강유수천강월 ~ 만리무운만리천 ~

千江有水千江月 萬里無雲萬里天

자종금신지불신 ~ 견지금계불훼범 ~

自從今身至佛身 堅持禁戒不毀犯

유원제불작증명 ~ 영사신명종불퇴 ~

唯願諸佛作證明 寧捨身命終不退

세존당입설산중 ~ 일좌부지경육년 ~

世尊當入雪山中 一坐不知經六年

인견명성운오도 ~ 언전소식변삼천 ~

因見明星云悟道 言詮消息遍三千

천상천하무여불 ~十方세계역무비 ~

天上天下無如佛 十方世界亦無比

세간소유아진견 ~ 일체무유여불자 ~

世間所有我盡見 一切無有如佛者

가사정대경진겁 ~ 신위상좌변삼천 ~

假使頂戴經塵劫 身爲牀座遍三千

약불전법도중생 ~ 필경무능보은자 ~

若不轉法度衆生

畢竟無能報恩者

아차보현수승행 ~ 무변승복개회향 ~

我此普賢殊勝行

無邊勝福皆廻向

보원침익제중생 ~ 속왕무량광불찰 ~

普願沈溺諸衆生

速往無量光佛刹

사대각리여몽중 ~ 육진심식본래공 ~

四大各離如夢中

六塵心識本來空

욕식불조회광처 ~ 일락서산월출동 ~

欲識佛祖回光處

日落西山月出東

원공법계제중생 ~ 동입미타대원해 ~

願共法界諸衆生

同入彌陀大願海

진미래제도중생 ~ 자타일시성불도 ~

盡未來際度衆生

自他一時成佛道

나무서방정토 극락세계 삼십육만억

南無西方淨土 極樂世界 三十六萬億

일십일만구천오백 동명동호

一十一萬九千五百 同名同號

대자대비 아미타불 나무서방정토

大慈大悲 阿彌陀佛 南無西方淨土

극락세계 불신장광 상호무변

極樂世界 佛身長廣 相好無邊

금색광명 변조법계 사십팔원 도탈중생

金色光明 遍照法界 四十八願 度脫衆生

불가설 불가설전 불가설

不可說 不可說轉 不可說

항하사불찰 미진수 도마죽위

恒河沙佛刹 微塵數 稻麻竹葦

무한극수 삼백육십만억 일십일만

無限極數 三百六十萬億 一十一萬

구천오백 동명동호 대자대비

九千五百 同名同號 大慈大悲

아등도사 금색여래 아미타불

我等道師 金色如來 阿彌陀佛

나무문수보살 나무보현보살

南無文殊菩薩 南無普賢菩薩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세지보살

南無觀世音菩薩 南無大勢志菩薩

나무금강장보살 나무제장애보살

南無金剛藏菩薩 南無除障菩薩

나무미륵보살 나무지장보살

南無彌勒菩薩 南無地藏菩薩

나무일체청정 대해중보살마하살

南無一切清淨 大海衆菩薩摩訶薩

원공법계제중생 동입미타대원해

願共法界諸衆生 同入彌陀大願海

시방삼세불 아미타제일 구품도중생

十方三世佛 阿彌陀第一 九品度衆生

위덕무궁극 아금대귀의 참회삼업죄

威德無窮極 我今大歸依 懺悔三業罪

범유제복선 지심용회향 원동염불인

凡有諸福善 至心用廻向 願同念佛人

진생극락국 견불요생사 여불도일체

盡生極樂國 見佛了生死 如佛度一切

원아임욕명종시 진제일체제장애

願我臨欲命終時 盡除一切諸障礙

면견피불아미타 즉득왕생안락찰

面見彼佛阿彌陀 卽得往生安樂刹

원이차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중생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當生極樂國 同見無量壽 皆共成佛道

◎ 아미타 불이(不二) 염불송

(시간에 따라서 장염염불 전후에 계속할 수 있다.)

1.

이마음과 이몸바쳐~ 부처님께 예경하고~
삼귀의와 오계받아~ 진리터전 일구오리~
삼보님은 자비의배~ 고통바다 건네주네~
한조각의 향사루어~ 부처님께 절합니다~.

2.

원합니다 이한몸이~ 성불하는 그날까지~

불법진리 의지하여~ 염불참선 닦아가리~
변함없는 신심으로~ 물러서지 않으리니~
시방삼세 부처님은~ 증명하여 주옵소서~.

3.

흙탕물에 마니보주~ 탁한물이 정화되듯~
산란심에 염불하면~ 흐린마음 맑아지네~
이마음이 부처이고~ 마음밖에 부처없어~
정중당에 함께모여~ 염불선을 닦아보세~.

4.

염불하는 그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요~
염불하는 그마음이~ 본래부처 성취하네~
세간속의 염불행자~ 이세상의 꽃이되고~
염불삼매 얻게되면~ 일체불법 성취되네~.

5.

아미타불 염불할제~ 근심걱정 사라지고~
어둔마음 밝아지니~ 극락세계 따로없네~
백팔염주 이십만번~ 고뇌구름 벗겨지고~
백팔염주 백만번에~ 열반언덕 이른다네~.

6.

저허공에 달밝으면~ 강물마다 달그림자~
중생마음 정화되면~ 부처마음 나타나네~
참성품을 공경하고~ 어둔마음 굴복시켜~
모든이웃 공경하면~ 염불선의 실천일세~.

7.

깨달음의 추구보다~ 자비심을 실천하세~
자비심을 실천하면~ 이기심이 사라지고~
나란생각 사라지면~ 참성품이 드러나니~
참성품이 드러나면~ 깨달음의 완성일세~.

8.

스스로를 옹아매는~ 이기심과 온갖분별~
이기적인 집착에서~ 벗어남이 참된출가~
끝이없는 번뇌망상~ 나에게서 생겨나니~
나없는법 깨우쳐야~ 일체속박 벗어나네~.

9.

중생마음 깊은곳에~ 아미타불 계신다네~
중생마음 부처마음~ 본래들이 아니어서~
입과마음 서로응해~ 염불삼매 성취하면~
일체병고 소멸되고~ 일체공덕 성취되네~.

10.

바닷물로 목욕하면~ 모든넷물 사용했듯~
아미타불 염불하니~ 일체공덕 성취했네~
염불공덕 나타나면~ 아미타불 함께하니~
걸음마다 연꽃피고~ 연꽃마다 아미타불~.

11.

마명용수 높은조사~ 염불왕생 권장하고~
염불로써 무생법인~ 능엄경에 이르셨네~
극락세계 관상하고~ 아미타불 염불하여~
큰평안에 안주하니~ 중생들의 본향일세~.

12.

수평선에 황혼되면~ 서쪽하늘 찬란하고~
붉은태양 뚜렷하니~ 금빛물결 출렁이네~
이와같이 관상하고~ 아미타불 염불하니~
육진경계 사라지고~ 온누리가 금색광명~.

13.

아미타불 염불속에~ 아상인상 녹아지고~
아미타불 염불속에~ 관념집착 떨어지고~
아미타불 염불속에~ 욕망증오 소멸되어~
아미타불 염불속에~ 영생불멸 해탈언네~.

14.

아침해가 떠오르면~ 어둔세상 흔적없듯~
염불하는 마음속에~ 밝음만이 넘쳐나네~
저녁달이 떠오르면~ 온세상이 아름답듯~
염불하는 마음속에~ 온누리가 평화롭네~.

15.

아미타불 아미타불~ 어느곳에 계신가요~
생각생각 끊임없이~ 간절하게 이어지다~
마음길이 끊어지고~ 나머지도 사라질때~
홀연어둠 흔적없고~ 자성광명 아미타불~.

16.

마음속의 의식흐름~ 주시하여 살펴보니~
과거생각 미래생각~ 현재일념 하나없네~
들숨날숨 주시할때~ 번뇌망상 일지못해~

호흡따라 아미타불~ 온누리가 하나되네~.

17.

아미타불 염불속에~ 근심걱정 사라지고~

아미타불 염불속에~ 일체병고 사라지고~

아미타불 광명속에~ 어둔마음 밝아져서~

아미타불 광명속에~ 기쁨의삶 축복의삶~.

18.

탐욕불꽃 소멸하니~ 부족함이 하나없고~

성냄불꽃 소멸하니~ 자비심이 넘쳐나고~

애욕불꽃 소멸하니~ 안락세계 나타나고~

번뇌불꽃 소멸하니~ 아미타불 나타나네~.

19.

아미타불 한마디에~ 무량공덕 담겨있어~

아미타불 염불하면~ 번뇌업장 녹아지고~

아미타불 관상하면~ 부처종자 싹이터서~

아미타불 친견하면~ 본래부처 성취하네~.

20.

푸른산도 아미타불~ 맑은물도 아미타불~

저허공도 아미타불~ 온누리가 아미타불~

아미타불 광명속에~ 부처중생 사라지고~

아미타불 광명속에~ 생사윤회 본래없네~.

21.

걸음걸음 아미타불~ 들숨날숨 아미타불~

내성품이 아미타불~ 내마음이 극락정토~

가는이여 가는이여~ 열반으로 가는이여~
고해물결 타고넘어~ 열반언덕 가는이여~.

22.

이세상의 큰도둑은~ 아미타불 아니신가~
근심걱정 인간고뇌~ 남김없이 가져가서~
부족함이 하나없고~ 기쁨만이 넘쳐나는~
신령스런 알음알이~ 제스스로 보게하네~.

23.

불적찾아 성지순례~ 많은사람 떠나지만~
마음속의 참된성지~ 찾는사람 별로없네~
그대가슴 깊은곳에~ 가장귀한 보배있네~
이진리에 의지해서~ 큰행복을 얻으소서~.

24.

잠들기전 아미타불~ 깨어나면 아미타불~
염불속에 잠이들면~ 꿈속에도 아미타불~
잠들기전 한생각이~ 아침으로 이어지듯~
임종직전 아미타불~ 밝은세상 인도하네~.

25.

저녁노을 곱게지면~ 아침햇살 찬란하고~
저녁잠이 편안하면~ 아침기운 상쾌하네~
세상걱정 인생고뇌~ 부처님께 다말기고~
염불속에 눈감으면~ 좋은환생 약속되네~.

26.

한밤중에 깨어있는~ 세부류의 사람있네~

병든사람 신음속에~ 긴긴밤을 고통받고~
애욕중생 욕락으로~ 어둔밤을 다보내고~
염불행자 적정속에~ 염불삼매 체험하네~.

27.

나의삶은 불법위해~ 봉사하기 위함이고~
나의삶은 이웃에게~ 기쁨주기 위함이네~
나의삶은 불법공덕~ 찬탄하기 위함이고~
나의삶은 부처님과~ 하나되기 위함일세~.

28.

맑은삶과 고요한삶~ 밝은삶의 축복된삶~
고집떠난 해탈의삶~ 함께하는 기쁨의삶~
삶의향기 넘쳐나서~ 온누리에 퍼져가니~
염불참선 함께뉘어~ 본고향에 돌아가세~.

29.

이와같은 수행으로~ 늡음죽음 초월하고~
이와같이 닦아가니~ 불안공포 본래없고~
이와같은 수행으로~ 열반으로 나아가니~
이와같은 무량공덕~ 이웃에게 회향하리~.

원공법계제중생~ 동입미타대원해~

願共法界諸衆生 同入彌陀大願海

진미래제도중생~ 자타일시성불도~

盡未來際度衆生 自他一時成佛道

나무서방정토 극락세계 삼십육만억

南無西方淨土 極樂世界 三十六萬億

일십일만구천오백 동명동호

一十一萬九千五百 同名同號

대자대비 아미타불 나무서방정토

大慈大悲 阿彌陀佛 南無西方淨土

극락세계 불신장광 상호무변

極樂世界 佛身長廣 相好無邊

금색광명 변조법계 사십팔원 도탈중생

金色光明 遍照法界 四十八願 度脫衆生

불가설 불가설전 불가설

不可說 不可說轉 不可說

항하사불찰 미진수 도마죽위

恒河沙佛刹 微塵數 稻麻竹葦

무한극수 삼백육십만억 일십일만

無限極數 三百六十萬億 一十一萬

구천오백 동명동호 대자대비

九千五百 同名同號 大慈大悲

아등도사 금색여래 아미타불

我等道師 金色如來 阿彌陀佛

나무문수보살 나무보현보살

南無文殊菩薩 南無普賢菩薩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세지보살

南無觀世音菩薩 南無大勢志菩薩

나무금강장보살 나무제장애보살

南無金剛藏菩薩 南無除障菩薩

나무미륵보살 나무지장보살

南無彌勒菩薩 南無地藏菩薩

나무일체 청정 대해중보살마하살

南無一切清淨 大海衆菩薩摩訶薩

원공법계제중생 동입미타대원해

願共法界諸衆生 同入彌陀大願海

시방삼세불 아미타제일 구품도중생

十方三世佛 阿彌陀第一 九品度衆生

위덕무궁극 아금대귀의 참회삼업죄

威德無窮極 我今大歸依 懺悔三業罪

범유제복선 지심용회향 원동염불인

凡有諸福善 至心用廻向 願同念佛人

진생극락국 견불요생사 여불도일체

盡生極樂國 見佛了生死 如佛度一切

원아임욕명종시 진제일체제장애

願我臨欲命終時 盡除一切諸障礙

면견피불아미타 즉득왕생안락찰

面見彼佛阿彌陀 卽得往生安樂刹

원이차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중생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當生極樂國 同見無量壽 皆共成佛道

한글 금강경

제 1, 법회가 열린 인연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서 큰 비구 천이백오십인과 함께 계시었다.

그 때 세존께서는 진지드실 때가 되었으므로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가지시고 사위성에 들어 가시와 차례로 밥을 비시었다. 그리고 본곳으로 돌아 오시어 공양을 마치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제 2, 선현이 법을 청하다

그 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웃웃을 바른쪽 어깨에 벗어 매고 바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공경하면서 부처님께 사죄었다.

“희유하시옵니다.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피 주시고 모든 보살들에게 잘 당부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선녀인의 아늑다라삼막삼보 리심을 일으킨 이는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번뇌의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득하고 가득하도다. 수보리야 너의 말과 같이 여래가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고 잘 당부하나니라. 너희들은 이제 자세히 들으

라, 이제 마땅히 너 희들을 위하여 연설하리라. 선남자-선녀인이 아늑다라사막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마땅히 깨달은 마음을 이와 같이 머물고 그 번뇌의 마음을 이와 같이 항복받을지니라.”

“그러하옵시다.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듣고자 하나이다.”

제3, 대승의 바른 종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번뇌의 마음을 항복시킬 것이니라. 무릇 있는 바 모든 중생의 종류인 알로 생기는 것, 태로 생기는 것, 습기로 생기는 것, 화하여 생기는 것, 형상 있는 것, 형상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 것들을 내가 모두 다 교화하여 해탈의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하노라.” 하라.

이렇게 하여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만 실로 한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는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제4, 머무름 없는 묘행

“또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어떤 법에도 머문 바 없이 보시를 행할 것이니, 이른바 현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 것이며, 소리, 냄새, 맛, 닿이는 것과 온갖 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 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여 현상에 머물지 말 것이니 왜 그러냐 하면 만일 보살이 현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을 생각으로 다 헤아려 알 수 있느냐.”

“할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북방과 네 간방과 아래 위 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현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려 알수 없이 많으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지니라.”

제5, 실다운 진리를 보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신의 몸매로써 여래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몸매로써 여래를 볼 수 없사옵니다. 왜냐 하오면 여래

께서 몸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몸매가 아니
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
다. “무릇 있는 바 모든 현상은 다 이것이
허망하니 만 약 모든 현상이 진실상이 아닌
줄을 보면 곧 여래를 보느니라.”

제6, 말세의 바른 신심 희유하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이
나 글귀를 듣고 실다운 신심을 낼 수 있겠
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여래가 가신지 2천 5
백년 뒤에도 계를 받아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능히 이와 같은 말과 글귀를
신심을 내어 이것을 진실하게 여기리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셋 넷 다섯 부처님께만 착한 마
음의 바탕을 튼튼히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
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의 처소에서 거룩
한 마음의 바탕을 튼튼히 한 사람이니, 이
글귀를 듣고 한 생각에 거룩한 믿음을 내느
니라. 수보리야, 여래는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 것을 다
알고 다 보느니라.

왜 그러나 하면 중생들은 다시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산다는 생각]이 없으며, 진리라는 생각도 없고, 그릇된 법이라는 생각도 없기 때문 이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이 만일 마음에 어떤 상을 취하면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집착하게 되는 때문이니, 왜냐하면 만 일 진리란 생각을 취하여도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걸리게 되며, 그릇된 법이란 생각을 취하여도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산다는 생각]에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른 진리를 지키지도 말고 그릇 된 법을 지키지도 말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비구는 내가 말한바 법이 뗏목과 같은 줄을 알라.’ 하였으니 진리도 오히려 놓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그릇된 법이라.”

제7, 얻을 것도 설할것도 없다

“수보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냐, 여래가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느냐. 또 여래가 말한 바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사뢰었다.

“제가 아옵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결정된 진리가 있어서 그것을 아녹다라삼막삼보리라 하시는 것이 아니오며, 또한 결정된 내용이 없는 진리를 여래께서 말씀해 주셨나이다.

왜 그러냐 하오면 모든 깨달은 현인과 성인은 상대의 세계를 뛰어난 무위의 절대법 가운데 차별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제 8, 모든 것 진리로 부더 나오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했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사뢰었다.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 하오면 이 복덕은 본체적인 마음의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이오니 그러므로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에 네 글귀 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말해 주었다면 그 복이 다른 복덕보다 더 뛰어나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부처님의 아녹다라삼막삼보리법이 다 이 경으로부터 나온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란 곧 불

법이 아니니라.”

제9, 절대적 법은 존재가 아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생각하기를 ‘내가 수다원과를 얻었도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퇴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오면 수다원은 이름이 성인의 흐름에 들었다는 말이 오나 실은 들어간 것이 아니옵고, 현상이나 소리 냄새 맛 촉감이나 어떤 진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온데 이름을 수다원이라 하였을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사다함과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퇴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 하오면 사다함은 이름이 한 번 갔다 온다는 말이오나 실은 가고 온다는 생각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이름하였을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나함과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퇴었다.

“아니옵이다. 세존이시여, 왜냐 하오면 아나 함은 이름이 [오지않는다]는 말이오나 실은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는 것을 아나함이라 이름하였을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퇴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오면 실로 이것이 진리라고 할 내용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아라한이라 했을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노라’ 하오면 이는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가운데서 으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는 욕심을 여윈 첫째 가는 아라한이란 말씀이오나 세존이시여, 저는 욕심을 여윈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곧 수

보리에게 [아라난행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을 것이온데, 수보리가 실로 아라난행을 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수보리가 아라나행을 좋아하는 자]라고 이름하였사옵니다”.

제10, 정토를 장엄하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어떤 진리를 얻은 바가 있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 계실 적에 어떤 진리를 얻으신 바가 없사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오면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장엄함이 아니오며, 그 이름이 장엄일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라. 마땅히 형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 마땅히 소리와 냄새, 맛부딪침과 어떤 법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라. 수보리야 비

유컨대 만일 어떤 사람이 몸이 큰 수미산만
하다면 네 생각은 어떠하냐, 그 몸을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퇴었다.

“아주 크웁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오면 부
처님께서는 몸 아닌 것을 가리켜서 큰 몸이
라 이름하셨기 때문이웁니다.”

제11, 절대한 큰 복덕

“수보리야, 항하에 있는 모래 수처럼 그렇게
많은 항하가 있다면 네 생각이 어떠하냐. 그
모든 항하 가운데 있는 모래가 얼마나 많겠
느냐.”

수보리가 사퇴었다.

“아주 많사웁니다. 세존이시여, 저 모든 항
하의 수만 하여도 한없이 많을 것이온대 하
물며 그 가운데 있는 모래이겠나이까.”

“수보리야,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 저 항
하의 모래 수처럼 많은 삼천대천세계에 가
득찬 7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하였다면 그
복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사퇴었다.

“심히 감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 가운데서 네 글귀만이라도 받아지니고 남을 위하여 말해 준다면 그 복덕이 앞에서 말한 복덕보다 더 없이 뛰어나리다.”

제12, 바른 교법을 존경하라

“또 수보리야, 이 경 가운데 네 글귀만이라도 그 뜻을 일러준다면 마땅히 알라. 이곳은 일체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다 마땅히 공경하기를 부처님의 탑과 절에 하듯이 할 것이어늘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능히 다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움이겠느냐.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제일 가는 희유의 진리를 성취한 것이니라. 만일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부처님이 계신곳과 같고 존경받는 부처님의 제자가 있는 것과 같나니라.”

제13, 법답게 받아 지니라

그 때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퇴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경을 무어라 이름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렇게 너희들이 마땅히 받들어 지니라.

왜냐하면 여래가 말한 반야바라밀이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 일 뿐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어떤 진리를 말한 바가 있는 것이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죄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없사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 천세계에 있는 모든 먼지의 수를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죄었다.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이 모든 먼지를 여래는 먼지가 아니라고 말하나니 이것은 이름이 먼지일 뿐이며, 여래가 말하는 세계 또한 그것이 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세계일 따름이니라.”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하냐. 가히 서른 두 가지 거룩한 몸매로써 여래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서른 두가지 거룩한 몸매로서는 여래를 뵈올 수 없사옵니다.

왜 그러나 하오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서른 두가지 거룩한 몸매는 곧 몸매가 아니옵고 그 이름이 몸매이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항하의 모래 수와 같은 목숨을 바쳐 널리 보시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내지 네 글귀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남을 위해 설명해 주었다면 그 복이 앞의 복보다 심히 많나니라.”

제14, 상을 여윈 적멸

그때 수보리가 이 경 말씀하심을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달아 알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부처님께 사죄었다.

“참으로 희유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심히 깊은 경전을 말씀하시오니, 제가 옛적 전생으로 오면서 닦아 얻은 바 지혜의 눈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얻어 듣지 못 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곧 [실다운 진리의 경계]가 생길 것이오니, 이 사람은 마땅히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것임을 알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실다운 진리의 경계]라는 것은 곧 어떤 현상이나 관념으로서가 아니오니 그러

므로 여래께서 [실다운 진리의 경계]라고 이름하셨나이다.

그러하온데 세존이시여, 제가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듣고 믿어 알고 받아 지니는 것은 어렵지 않사오나, 만일 이 다음세상 2천 5백년 뒤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믿어 이해하여 받아 지닌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제일 희유한 사람이겠나이다. 왜 그러냐 하오면 그 사람은 [나라는 생각]도 없고 [남이라는 생각]도 없사오며,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사오며, [오래 산다는 생각]도 없는 까닭이옵니다. 왜냐 하오면 [나라는 생각]이 곧 절대관념이 아니오며, [남이라는 생각]과 [중생이라는 생각]과 [오래 산다는 생각]이 곧 절대관념이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왜 그러냐 하오면 일체의 온갖 관념을 다 여윈 것을 부처라 이름하는 때문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그러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두려워 하지 않으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참으로 희유한 사람이니라. 왜 그러냐 하면 수보리야, 여래가 말한 제일바라밀이 곧 제일

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일 뿐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인욕바라밀도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을 인욕바라밀이라 한다고 여래가 말하였나니라. 왜 그러냐 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몸을 베이고 찢기울 적에 내가 그 때에 [나라는 생각]이 없었으며 [남이라는 생각]이 없었으며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었으며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니, 내가 옛적에 마디 마디 4지를 찢기고 끊길 그때 만약 나에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응당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이니라.

수보리야, 또 여래가 과거에 5백년 동안 인욕선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노니, 저 세상에서도 [나라는 생각]이 없었으며, [남이라는 생각]도 없었으며,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었으며 [오래산다는 생각]도 없었나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관념을 여의어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킬지니 형상에 끄달리지 말고, 마음을 내며 마땅히 소리 냄새 맛 닿이는 것과 어떤 법에도 끄달리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 것이니라.

그러면 설사 마음에 머뭇이 있어도 머무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여래는 말하기를 보살은 마땅히 형상에 끄달리지 말고 보시하라고 하였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일체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나니, 여래가 말한 일체의 관념도 곧 관념이 아니며, 일체중생이라 한 것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여래는 진리의 말을 하는 이며, 진실을 말하는 이며, 진여의 말을 하는 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이니라.

수보리야, 여래가 얻은 바 진리는 이 법이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나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만약 마음을 어떤 법에 머물러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만약 마음을 어떤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햇빛이 밝게 비칠 적에 밝은 눈으로 갖가지 온갖 물체를 분별해 보는 것과 같나니라. 수보리야, 다음 세상에서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곧 여래가 불지혜로 이 사람을 다 알며 이 사람을 다 보나니 모두가 헤아릴 수 없고 가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제 15, 경을 지니는 공덕

“수보리야,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오전에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낮에 또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많은 몸으로 보시하며, 다시 저녁때에 또한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만억겁을 몸으로 보시하더라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신심으로 거슬리지 아니하면 그 복이 저 보다 수승하리니, 어찌 하물며 이 경을 베끼고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해 해설해줌이겠느냐.

수보리야, 요긴하게 말하면 이 경은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아주 한 없는 공덕이 있나니, 여래가 대승의 발심한 이를 위해 이 경을 말한 것이며 최상승의 발심한 이를 위해 이 경을 말하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사람들을 위해 널리 설명한다면 여래는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을 모두 보나니, 이 사람은 헤아릴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끝도 없고 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이러한 사람들은 곧 여래의 아녹다라삼막삼

보리를 짚어진 것이 되나니, 왜 그러냐하면 수보리야, 만일 소송의 법을 좋아하는 이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산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이 경을 능히 알아 듣고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 능히 해설하지 못 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어떤 곳이든 이 경이 있는 곳이면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응당 공양하는 바가 되리니, 마땅히 알라. 이곳은 곧 탑을 모신 곳이어서 모두가 응당 공경하고 절하며 에워싸고 돌면서 가지가지 꽃과 향을 그곳에 뿌리느니라.”

제16, 업장을 깨끗이 맑힘

“또 수보리야,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므로 만일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전세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한 세상에 떨어질 것이지만 금세에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음으로써 곧 전세의 죄업이 소멸되어 마땅히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얻게 되느니라. 수보리야, 내가 한량 없는 아승지접전의 과거를 생각하노니, 연등부처님 앞에서 8만 4천만억나유타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 뵈고 다 공양하였으며 받들어 섬기어 지냄이 없었느니라. 만약 다시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앞으로 오는 말세에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그 공덕은 내가 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백분의 일에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 분지 어떤 수학의 비유로는 능히 미치지 못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이 다음에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니어 독송하는 이가 얻는 공덕을 내가 다 갖추어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곧 마음이 산란하여 의심하며 믿지 아니하리라.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경은 뜻도 가히 생각할 수 없고 그 과보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제 17, 마침내 나는 없다.

그 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이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마땅히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번뇌의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번뇌의 마음을 어떻게 행복받아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낼 것이니,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

라. 그리하면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지만 실은 한 중생도 제도된 자가 없다' 하라. 수보리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 수보리야, 그 까닭은 실로 어떤 진리가 있지 않은 경계에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얻을 만한 어떤 진리가 있어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아옵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 계시을 적에 어떤 진리가 있어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일으킨 것이 아니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보리야, 실로 어떤 진리가 있지 않은 경계에서 여래가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은 것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진리가 있어서 여래가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다면 연등부처님께서 나에게 ‘네가 다음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고 석가모니라 이름하리라.’ 라고 수기를 주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실로 어떤 진리가 있지 않은 경계에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기에 연등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다음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니 그 호를 석가모니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여래라 함은 모든 법이 여여하여 같다는 뜻이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여래가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다.’ 고 말하더라도 수보리야, 부처님은 실로 어떤 진리가 있지 않은 경계에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은 것이니라. 수보리야, 여래가 얻은 아녹다라삼막삼보리 가운데는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래가 말하기를 ‘일체법이 다 이불법이니라’ 하느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일체법이라 함은 곧 일체법이 아니니, 그러므로 그 이름이 일체법일 뿐이니라. 수보리야, 비유컨대 사람의 몸이 아주 큰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가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몸이 아주 크다는 것도 실로 큰 몸이 아니오니 그 이름이 큰 몸일 따름이옵니다.”

“수보리야, 또한 이와 같으니 만일 ‘내가 한량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했다’고 말하는 이

가 있다면 이가 있다면 이는 곧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나니라. 왜 그러냐 하면, 수보리야, 실로 어떤 진리도 마음에 두지 않은 이를 보살이라 이름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여래가 말하기를 [온갖 법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오래 사는 것도 없다]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여래가 말하는 불국토의 장엄은 곧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일 따름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 없는 진리]를 통달하였다면 여래가 이 사람을 참된 보살마하살이라 이름하나니라.”

제18, 일체를 하나로 보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육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육안이 있으시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천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천안이 있으시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혜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혜안이 있으시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법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법안이 있으시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불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불안이 있으시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생각하느냐. 저 항하 가운데 있는 수 많은 모래를 여래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항하의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한 항하 가운데 있는 모래수와 같이 많은 항하가 또 있고 이 모든 항하의 모래와 같은 수의 불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를 참으로 많다하겠느냐”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저 많은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여래가 다 아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여래가 말하는 모든 마음은 다 이것이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일 따름이기 때문이니라. 그 까닭은 수보리야,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제19, 법계를 두루 교화하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3천 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많겠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아주 많은 복을 얻나이다.”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여래가 복덕을 많이 얻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니, 복덕이 본래없는 것이므로 여래가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느니라.”

제20, 색신을 여원 범신여래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구족하게 거룩한 육신으로 여래를 볼 수 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거룩하게 구족한 육신을 가지고 여래를 뵈을 수 없나이다. 왜냐하오면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구족한 육신이라 함은 곧 구족한 육신이 아니옵고 그 이름이 구족한 육신일 따름이기 때문이옵니

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구족한 몸매를 가지고 여래를 볼 수 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구족한 몸매를 가지고 여래를 뵈올수 없나이다. 왜 그러냐 하오면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몸매를 구족했다 하심은 곧 구족이 아니옵고 그 이름이 구족일 따름이기 때문이옵니다.”

제21, 말을 여인 설법 “수보리야, 너는 이렇게 말하지 말라. ‘여래가 [내가 마땅히 말한 바 진리의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래가 진리의 법을 말한 바가 있다’ 한다면 이는 곧 여래를 비방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니, 내가 말한 뜻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수보리야,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진리가 없음을 말하는 것일 따름이니라.” 그때 혜명수보리가 부처님께 사퇴었다.

“세존이시여, 이 다음 세상에 자못 어떤 중생이 있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낼수 있겠나 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저들이 중생이 아니면 수보리야,

중생이다 하는 것은 여래가 중생이 아닌 것을 이름하여 중생이라 하였을 뿐이기 때문 이니라.”

제22, 진리는 얻을 것 없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으신 것은 얻으신 것이 없는 것이옵 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수보리야. 내가 아녹다라삼막삼보리라 함은 내가 어떤 진리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지 않는 경계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을 아녹다라삼막삼보리라 이름하였 을 따름이니라.”

제23,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닦아라 “또 수보 리야, 이 진리가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으 니 이것을 아녹다라삼막삼보리라 이름하느 니라.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 고 [오래 사는 것]도 없이 온갖 거룩한 법 을 닦으면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느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거룩한 법이라 함은 여래 가 곧 거룩한 법 아닌 것을 일컫는 말이니 그 이름이 거룩한 법일 따름이니라.”

제 24, 복과 지혜를 비교할 수 없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모든 삼천대천세계에서 제일 큰 산인 수미산왕만한 칠보의 덩어리들을 가지고 널리 보시한다 해도, 만일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에서 내지 네 글귀의 계송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연설해 주었다면, 앞의 복덕으로는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백천만억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내지 숫자가 있는대로 다 모아서 비교하더라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제 25, 교화해도 한 것 없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여래가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하리라.’ 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 실로 여래에게는 제도할 중생이 없기 때문이니, 만약 여래가 제도함이 있다면 여래는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여래가 [나라는 생각]이 있다 함은 곧 나라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인데 범부들이 나라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할 뿐이니라. 수보리야, 범부라는 말도

여래는 곧 범부가 아님을 가르키는 말이니
그 이름이 범부일 따름이니라.”

제26, 범신은 존재가 아니다 “수보리야, 너
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서른 두가지 거
룩한 몸매로써 여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
느냐.”

수보리가 사뢰었다.

“그러하옵니다. 서른 두 가지 거룩한 몸매로
써 여래를 뵈올 수 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서른 두가지 거룩한 몸매로써 여래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곧 여래라 하겠느
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이해하옵기로는 서른 두가지 거룩한
몸매로는 여래를 뵈올 수 없사옵니다.”

그때 세존께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이는 곧 샷된 도를 행하
는 자라. 여래를 길이 볼 수 없나니라.”

제27, 아주 없는 것 아니다

“수보리야, 네가 만약 생각하기를 ‘여래가

구족한 몸매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다’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여래가 구족한 몸매를 갖추지 않기 때문에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다’ 하지 말라.” “수보리야, 네가 만약 생각하기를,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모든 법이 끊어져 아주 없음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내지 말라. 왜그러느냐 하면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없어진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니라.”

제28,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보살이 항하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했더라도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일체 법에 나 없는 진리를 알아 깨달음을 이루었다면 이 보살이 얻은 공덕은 앞의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뛰어나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죄였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사옵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자기가 지은 바 복덕을

탐착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느니라.”

제29, 위의를 그욕하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래가 혹 온다거나 간다거나 혹 앓는다거나 눕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바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라. 왜 그러냐 하면 여래는 어디로 조차 오는 바도 없으며 또한 어디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여래라 이름하는 때문이니라.”

제30, 진리와 현상은 둘이 아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가는 먼지를 만들었다면 네 생각은 어떠하냐. 이 가는 먼지가 얼마나 많겠느냐.”

“심히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오면 만약 이 가는 먼지가 실로 있는 본체적 존재라면 부처님께서는 곧 저 가는 먼지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그것은 또 무엇 때문인가 하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는 먼지는 곧 가는 먼지가 아니오며 그 이름이 가는 먼지일 따름이기 때문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도 곧 세계가 아니옵고 그 이름이 세계일 뿐이옵니다. 왜 그런가 하오면 만약 세계가 실로 있는 본체적 존재라면 곧 그것은 절대적 하나의 모양이어야 할 것이오며,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적 하나의 모양도 실은 절대적 하나의 모양이 아니옵고 그 이름이 절대적 하나의 모양일 따름이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야, 절대적 하나의 모양이라 하는 것은 이것을 말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범부 중생들이 그것을 탐착할 뿐이니라.”

제31, 지견을 내지 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래가 [나라는 지견]과 [남이라는 지견]과 [중생이라는 지견]과 [오래 산다는 지견]을 말했다’ 한다면,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내가 말한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여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왜 그러냐 하오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지견]과 [남이라는 지견]과 [중생이라는 지견]과 [오래 산다는 지견]은 곧

[나라는 지견]이 아니옵고 [남이라는 지견]이 아니옵고 [중생이라는 지견]이 아니옵고 [오래 산다는 지견]이 아닌 까닭이옵니다.”

“수보리야, 아득다라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키는 온갖 법에 응당 이와 같이 알며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깨달아서 [진리라는 생각]을 내지 말 것이니라. 수보리야, [진리라는 생각]도 여래가 곧 [진리라는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다만 그 이름이 진리라는 생각이라고 말하였을 따름이니라.”

제32, 응화신은 참된 것 아니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지세계에 가득찬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했다라도 만약 보살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 이 경을 지니고 내지 네 글귀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다른 이를 위해 연설해 준다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더욱 뛰어나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을 위해 연설하는 것인가. 생각과 현상에 이끌리지 말고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라. 일체 현상계의 모든 생멸법은 꿈이며 환이며 물거품이며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불지어다.” 부처님

께서 이 경을 다 말씀하심에 장로 수보리와
비구 비구니와 우바새 우바이와 일체 세간
의 하늘사람과 이 세상 사람과 아수라 등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크게 기뻐하여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